



“연습 끝나면 개인 방송...투잡 뛰는 걸그룹이죠”

6인의 인기 BJ, 애청자만 23만 명 데뷔 전부터 두터운 팬층 자랑해 걸그룹·댄서·모델...출신도 다양

빼어난 외모와 매력, 확고한 개성, 재치 있는 화술을 지닌 아프리카TV의 인기 BJ들은 수천, 수만 명이 달하는 ‘팬(시청자)’들을 몰고 다니며 연예인 부럽지 않은 인기와 높은 수익을 누리는 것은 물론 적지 않은 사회적 영향력까지 미치고 있다.

아프리카TV BJ들 중에는 전·현직 연예인들도 많다. 연기자로는 강은비, 김성은 등이 있고 가수로는 지오(엠블랙), 엘린(크레용팝), 정혜민(가비엔제이) 등이 BJ로 활동 중이다. 유상무, 김현정, 윤성환, 정만호 등 개그맨들의 방송도 인기다. 최근에는 아프리카TV BJ로 활동하다가 지상파, 케이블TV 등으로 역 진출하는 사례 역시 급증하고 있다.

그리고 드디어 이들이 나왔다. 여섯 명의 인기 여성 BJ들이 뭉쳐 탄생한 걸그룹 ‘바이올렛’. 바이올렛은 구슬(리더), 도연(메인 보컬), 윤경(메인 댄서), 다다, 예리, 유은으로 구성됐다. 아프리카TV가 자체 오디션 프로그램인 ‘댄서 프로젝트’를 통과한 입상자들을 대상으로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를 치러 최종



아프리카TV에서 23만 명의 애청자를 거느린 인기 BJ 6명으로 구성된 걸그룹 바이올렛이 9월 공식 데뷔한다. 유은, 구슬, 도연, 윤경, 예리, 다다(왼쪽부터). 사진제공 | 아프리카TV

6명을 선발했다. 인기 BJ들인 6명의 애청자 수를 합하면 23만 명에 이른다. 9월 공식 데뷔 이전에 이미 두터운 팬층을 깔아놓고 출발하는 셈이다.

바이올렛 멤버 중에는 BJ 이전에 이색적인 경력을 갖고 있는 인물들도 있다. 예를 들어 구슬과 도연은 이미 연예계 경험이 있다. 구슬은 걸그룹의 멤버였고 도연은 솔로가수로 활동한 이력이 있다. 유은은 댄서, 다다는 모델 출신이다.

바이올렛은 BJ 출신 최초의 걸그룹이자, BJ를 병행하는 최초의 걸그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유은은 “지금도 연습이 끝나면 각자 집에 돌아가서 개인 방송을 한다. 아마 이런 패턴은 데뷔 후에도 계속될 것 같다”고 했고, 구슬은 “이른바 투잡이다”라며 웃었다. 도연은 “솔로가수로 활동할 때는 뭘 하든 혼자 해야 했다. 지금은 이렇게 멤버들이

버들이 생겼고, 그때와는 느낌이 많이 다르다. 뭘든지 함께 할 수 있다는 에너지 같은 것이 생겼다”고 했다. 걸그룹으로 활동할 때에도 리더를 맡았었다는 구슬은 “그때는 처음이다 보니 여유도 없었고 책임감이 부담스러웠다. 멤버들에게도 본의 아니게 강하게 대했던 것 같다. 지금은 여유가 생겼다. 멤버들과 웃으면서, 즐기면서 하고 싶다”고 했다.

바이올렛의 멤버들은 자신들의 재능을 펼치기 위해 BJ 활동을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바로 시작하라(여리)”, “갖고 있는 끼가 충분하다면 잘 될 것(유은)”, “후회하더라도 일단 해보고, 그 다음에 후회해도 늦지 않을 것(구슬)”이라고 조언했다.

아프리카TV는 콘셉트 개발, 이미지 메이킹 등 다방면으로 바이올렛의 데뷔를 지원할 예정이다. 스타 작곡가 신사동호랭이가 곡을 쓰고 모모랜드, 다이아 등의 데뷔를 도운 배원희 안무가가 데뷔곡의 안무를 맡는다. 17일부터는 이들의 데뷔 준비과정을 담은 리얼리티 프로그램이 SBS 아프리카TV를 통해 방영된다.

꿈이 화려하게 빛날 수 있는 것이 꿈이 아니라 꿈을 위해 도전하는 삶이 아름답기 때문이다. 아프리카TV 사상, 아니 어쩌면 국내를 넘어 세계 최초의 BJ 걸그룹으로 기록될 바이올렛의 꿈을 응원한다. 양형모 기자 ranbi@donga.com

김종운 변호사 “부동산법 알아야 내 재산 지키다”

‘김 변호사의 부동산법 상식’ 출간 “실용적 법 지식, 일상 용어로 전달”

‘전셋집 가계약 했는데 나중에 집주인이 판소리하면 어떡하지?’, ‘건폐율 용적률? 아, 머리아파. 이게 뭐지?’, ‘계약서에 도장 잘못 찍었다 집 날리는 거 아니냐?’. 부동산과 무관하게 사는 사람은 거의 없다. 주택매매, 전세, 경매... 꼼꼼히 따지지 아니 모르겠고, 그냥 넘어가자니 불안하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 부동산 법률지식을 알기 쉽게 가이드한 사람이 있다. 김종운 변호사(40)다. 그가 10년 가까이 주택과 부동산 분야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며 서민

들이 꼭 알아야 할 부동산법 상식을 담은 책 ‘김 변호사의 부동산법 상식(좋은땅 펴냄)’을 펴냈다.

“부동산법에 관심 갖게 된 계기는. ‘법학도 시절에는 법철학이나 헌법 같은 거 대담론이 근사하게 보였다. 사법연수원 수료 후 자산운용사, 증권사,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에 근무하며 주택·부동산법 관련 이슈를 폭넓게 다뤘다. 실무를 하다 보니 시야도 넓어지고 재미도 있었다. 특히 우리네 일상이 부동산법과 밀접하게 맞물려 있어 ‘이곳에 인생을 걸어보자’하고 파고들었다.”

“‘부동산법 상식’이라는 책을 냈는데, ‘간단한 법률 지식을 몰라 큰 재산적 피해

를 보는 분들을 많이 봤다. 법률가들이 법적 언어에 갇혀 법률지식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온전히 전달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생활과 밀착된 법률을 일상의 용어로 쉽게 전달하는 일이 가치 있을 것 같아 책을 쓰게 됐다. 부동산법을 알아야 내 재산을 지킬 수 있다.”

“부동산 상담 때 서민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은 뭐냐. ‘보증금 반환, 등기 거부 등 다양하다. 책에 20가지를 모아 문답형태로 팁을 정리했다. 일종의 실용적인 부동산법 지식 요약집이다. 이것만큼은 알고 있으면 좋겠다.”

“앞으로 계획은. ‘법은 전문성 못지않게 대중성이 중요하다. 앞으로도 서민들이 법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글도 쓰고 강의도 하며 법과 서민의 가교 역할을 할 것이다.” 양형모 기자



‘김 변호사의 부동산법 상식’을 펴낸 김종운 변호사. 김 변호사는 “서민들이 알아야 할 부동산법 상식을 알기 쉽게 풀이하기 위해 책을 출간했다”고 말했다. 사진제공 | 좋은땅



8월 중앙대 아트센터 대극장에서 열린 대학(일반)반부 예선에서 남성 참가자가 여장 차림으로 자유곡을 부르고 있다.

“내일의 조승우, 정성화, 옥주현은 바로 나!”. 제3회 동아뮤지컬콩쿠르가 치열한 예선을 마쳤다. 서울 흑석동 중앙대 아트센터 대극장에서 열린 예선은 7일 중등부·고등부와 8일 대학(일반)부로 나누어 진행됐다. 예선은 공개로 열렸으며 뮤지컬과 콩쿠르에 관심이 있는 관객들이 경연장을 찾아 무료로 관람했다. 예선 참가자들은 뮤지컬 연출가, 제작사 대표, 음악감독, 배우 등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들 앞에서 자신들의 재능과 기량을 선보였다. 예선 참가자들은 뮤지컬 넘버 중 자유곡 1곡(3~4분 내외)을 불렀으며, 본선에서는 자유곡 1곡을 전공 부르게 된다. 다만 예선 곡과 본선 곡은 중복되어선 안 된다. 모든 곡은 편곡이 안 된 원 키(Key)로 부르되 한국어 가사여야 한다.

제3회 동아뮤지컬콩쿠르의 본선과 시상식은 19일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각 부문에서 금상, 은상, 동상 수상자를 가리게 되며 대학(일반부) 금상 200만 원, 고등부 100만 원, 중등부 50만 원 등 상금을 시상한다. 양형모 기자

입는순간 느끼는 명품 골프반바지 2점 49,800원



블루

오렌지

블루

베이지

네이비

프리미엄 골프 반바지 여름 반바지의 생명은 물을 탄력적으로 받쳐주며 핏감이 우수 하여야 퀄리티가 높은 반바지인 것이다. 차원이 다른 기능성 소재와 사방 스판덱스 원단을 사용하여 신축성이 뛰어나 활동하기 편안하고 내구성, 속건성이 뛰어나 쾌적함을 유지한다. 또한 컬러풀한 색상과 심플한 디자인으로 어떤 상의와 코디해도 어울리는 품격 있는 반바지라 하겠다.

타이트하지 않고 넉넉한 밑 윗길이 쿨한 터치감으로 다리의 열기를 식혀 주며, 타이트하지 않고 밑 윗길이를 길게 제작해 중년 세대는 물론 전 연령대를 아우른다. 평상복은 물론 레포츠활동이나 여름골프 라운딩에서도 환상적인 착용을 자랑하며 어떠한 움직임에도 활동성에 제약을 받지 않는 명품 골프 반바지라 하겠다.



시원함을 극대화 통기성



스판원단을 사용 골프 등산 기능 신축성



땀을 빠르게 밀려버리는 흡수속건기능 발수기능



UV+ 자외선차단 피부보호

색상 오렌지, 네이비, 베이지, 블루
사이즈 30, 32, 34, 36, 38
판매가 2점 49,800원 (배송비 2,500원 소비자부담)
3점 74,000원 (배송비무료)

입금계좌 <농협> 301-0217-7784-41
예금주 (주)원프로튼
쇼핑몰 www.OPTOP.co.kr
문의전화 1644-3606